

# 5년만의 대보름 행사... 시민들 '얼씨구 좋다'

연날리기·떡지치기 등 민속놀이 "가정 화목" 달집에 축원문 '주렁' 시민들 손잡고 강강수월래 '장관' 지자체 "전통 이어가기 위해 노력"

"얼씨구, 좋다!" 5일인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주말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가 펼쳐졌다.

최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까지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면서 광주시민들은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으며 가족나들이를 즐겼다.

지난 4일 '고싸움놀이 축제'가 열린 광주 남구 고싸움놀이테마파크는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 없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연날리기·활쏘기·굴렁쇠 굴리기 등 각종 민속놀이가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생소한 놀이에 눈을 반짝인 채 부모의 손을 이끌며 행사장 곳곳을 누볐고 마당에서는 풍물패의 팽과리, 장구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지게, 굴렁쇠 등 옛 물건들을 직접 사용해보며 선조들의 지혜를 몸으로 느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다정한 목소리로 연신 불렀다.

아들과 민속놀이를 즐기던 30대 주모씨는 "입춘이라 날도 풀리고 오랜만에 열린 축제라 가족이 함께 왔다.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어 한결 편한 마음으



지난 4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열린 제40회 고싸움놀이 축제에서 고싸움놀이 보존회 회원들이 달집태우기와 고싸움놀이를 펼치며 새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로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이들도 이런 전통 놀이·체험은 처음 해보는 거라 너무 즐거워서 기쁘다"고 말했다.

친구·직장 동료로 단위로 놀러 온 나들이객들도 오랜만에 느끼는 축제 분위기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른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윷놀이·떡지치기 등을 즐기며 승부 결과에 아쉬움 섞인 탄성과 기쁜 환호를 번갈아 내질렀다.

시민 채윤주(57)씨는 "친구네 가족들과 다 같이 왔다. 윷놀이에서 우리 가족이 이겼는데 너무 기쁘더라"면서 "코로나19

나 경제 불황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긴다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들과 함께 온 김철승(45)씨도 "아들이 곧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추억을 쌓지 못했다. 아들과 재밌게 놀다가겠다"고 활짝 웃었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찾은 광산구 쌍암공원에서도 정월대보름 축제가 한창이었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당산제·무대공연·달집태우기·대동놀이 등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약 1200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다.

그중 쌍암공원 당산나무앞에서 진행된 당산제는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요하게 엄수되는 제례 절차에 시민들은 연신 '신기하다'고 놀라워했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양아름(17)양은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러 자주 오는 곳인데 이런 제사 풍경은 처음 본다"며 "전통 제사를 볼 기회가 많지 않은

데, 이번 행사를 통해 집 근처에서 옛 의례를 보게 돼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전통 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공원에서 각종 행사를 즐기던 시민들은 얼마 뒤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이 연주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중앙 무대로 모였다.

이곳에서는 이날의 백미인 '달집태우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모여든 인파는 무대에 마련된 대형 달집에 저마다 원하는 소원을 담은 축원지를 매달았다.

정성스레 축원지를 적은 조수영(15)양은 "가족의 건강과 학업에 대한 소원을 적었다. 다같이 모여 이렇게 한 해의 바람을 빌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정월대보름 행사가 5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달집태우기도 너무 기대된다. 내년에도 행사가 열린다면 꼭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행사 관계자들의 카운트 다운과 함께 쥐불강통 점화가 이어지자 달집에는 한순간에 불길이 솟구쳤다. 시민들은 함께 온 가족·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달집 주변을 돌며 한 해의 풍요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를 관리·감독한 광산구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구제역과 코로나 등으로 지난 2019년부터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정월대보름을 기념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다"며 "점차 전통문화·놀이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옛 문화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현·강주비 기자

## "광주교도소, 수형자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항소심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수형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광주교도소는 정신적 고통 배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1 민사부(항소부·재판장 김용신)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 250여 건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광주교도소장이 정보 부분 공개

·비공개·부존재 결정을 하면서 정보공개청구권·인격권·방어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광주교도소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A씨의 고소·고발장 사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결정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교도소는 소장 면담 신청 보고문·면담부, 정보공개법 제8조 1항의 정보 목록, 행정절차법 제17조 3항 규정의 비치된 편람, 수용자 피해 사건 근무 보고서와 행정 처리 건수·피해 사실 자술서도 비공개하거나 일부 공개했다. 정보공개법상 교정·교화 직무 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광주교도소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공개한 점, 공개 의무가 없는 다른 정보들을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공개한 점, 교정 업무 특성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양기람 기자



### 최고집

최고집은 단체석과 룸을 완비하고 있어 가족모임, 단체회식 등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국내산 1등급 돼지고기와 신선야채를 사용하여 더욱 깨끗하고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분위기에서 맛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최고집.



화정동 힐스테이트3단지 정문에서 도보5분  
광주광역시 서구 영화로 160번길 12-1

예약문의 010 4921 2902

모든 모임은 최고집에서 품격있게 준비하세요!



### 광주 유일 생대패구이전골 (무카타) 최초 런칭!

최상급 국내산 돼지고기 생대패삼겹 구이와 생대패구이전골 전문점 최고집

### 생대패구이전골 (무카타)

무-돼지고기, 카타-그릴 이라는 뜻의 태국요리. 무양까울리, 무카타까울리 등으로 불리우며 한국식 비베큐가 태국 현지화 된 음식으로 인기만점. 육수에 다양한 해물과 야채 등을 곁들여 고기구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웰빙요리. 최고집만의 특제소스로 차별화 된 맛을 선사합니다.

